

ISO/IEC JTC1 SC6 회의에 참석하고

장명국 부장/ITU국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의 공동연구로써 정보기술분야에서 표준을 개발, 제정하는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산하의 SC6 총회 및 WG(Working Group)회의가 지난 7월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미국의 해변휴양도시겸 제7함대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다.

각 회원국(National Body)의 제조업자, 통신사업자, 연구소, 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약 150여명의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OSI 참조모델중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하위 4계층에 대한 국제표준화작업을 수행하여, 각국의 통신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사용자 측면의 제품에 대한 규약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하위계층의 적합성규약, 관리규약, 정보보호규약 등의 표준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는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통신규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JTC1/SC6 에 P-Member로 가입하여 국제표준화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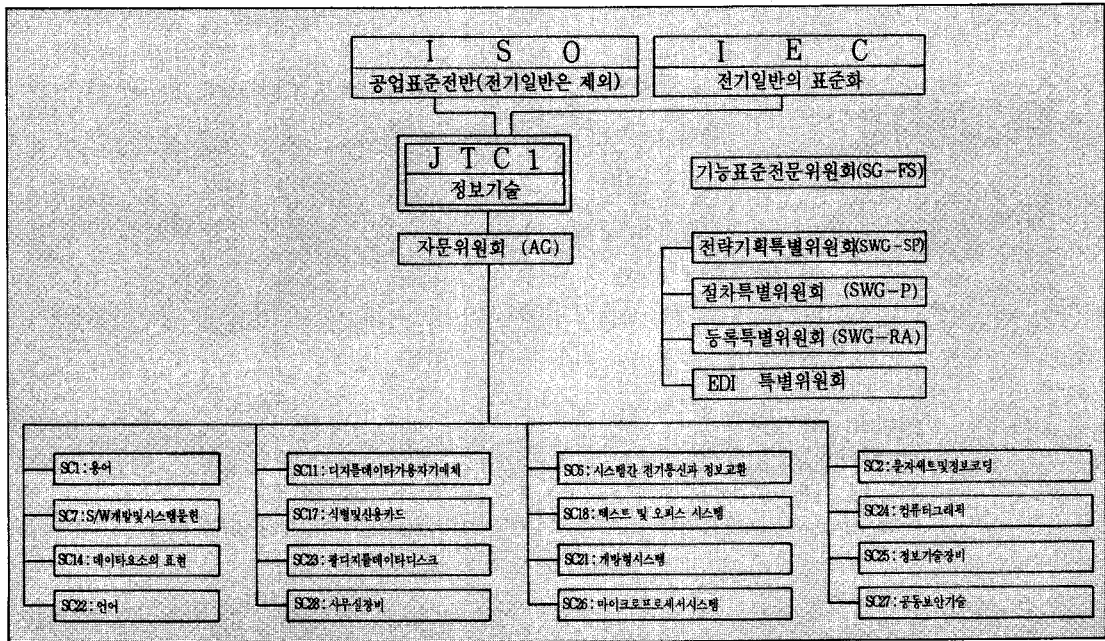
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참여 및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1993년 9월 SC6 Plenary 와 Working Group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준비중이다. 아래에서는 JTC1 SC6 조직 및 기능, CCITT 와의 간략한 상호비교와 이번 SC6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JTC1의 소개 및 CCITT와의 비교

JTC1은 ISO와 IEC의 수년동안 정보기술에 관한 많은 공동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양기관의 충분한 검토 및 정보기술경영집단(ITMG)의 충고를 받아들여, ISO TC97과 관련 SC IEC TC83 과 SC47B를 모체로 하여 1987년에 탄생되어서 주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을 개발하는 민간주도형의 표준화 전문기구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또다른 국제 표준화 조직인 CCITT는 정부주도(주관청)의 표준화 전문기구로서 큰 비교가 된다.

〈표 1〉은 JTC1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2〉는 CCITT 와 JTC1을 대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표 1〉 ISO/IEC JTC1 조직도



〈표 2〉 CCITT/JTC1 비교표

구 분	CCITT	JTC1
모 조 직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SO 및 IEC
성 격	정부(주관청) 주도 국제표준화기구	민간주도 국제표준화기구
참 가 자 격	주관청(Administration), RPOA(인정된 사기업), SIO(과학공업단체), IO(국제기구) 등	국가표준단체중 P-Member와 O-Member로써 참여
표준화분야	무선통신분야를 제외한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 및 요금문제 연구	정보기술, 정보통신분야
표준화기능	기본 표준 제정	기본표준 + 기능표준 제정
회 기	매 4년	매 3년
사 무 국	제네바에 전문사무국이 있으며 SG별 담당 카운슬러가 있음	SC별로 의장 및 간사국이 지정되어 사무국역할을 하고 있음
연구 조직	기본 3단계 : Study Group - Working Party - Sub Working Party	기본 3단계 : Sub Committee - Working Group - Sub Working Group
연구 과제 선정 절차	회원국 또는 SG에서 신규과제 제안 하여 차기총회에서 각 연구위원회의 연구과제로 확정(현재 과제선정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회기중 우편투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	회원국 또는 SC에서 신규연구항목(NWI)로써 제안되어 각국의 우편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JTC1의 사무국에 의해 각 SC에 부여된다. (연구항목의 Project화 한다.)
권 고(표준) 제정 단계	1 단계(제안단계) : New Question 2 단계(준비단계) : S.R을 중심으로 연구초안을 고려한다.	1 단계(제안단계) : New Work Item 2 단계(준비단계) : Project Editor를 중심으로 연구초안을 고려한다.

국제회의 참가기

	3 단계(위원회단계) : WP와 SG에서 연구초안을 검토, 심의 채택한다. 4 단계(승인단계) : SG에서 채택된 권고안을 각 주관청에 회람·투표한다. 5 단계(발간단계) : 국제권고를 ITU 사무국에서 편찬·발간한다.	3 단계(위원회단계) : WG에서 CD (Committee draft)를 고려한다. 4 단계(승인단계) : DIS(초안국제 표준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를 고려한다. 5 단계(발간단계) : ISO에서 국제 표준을 편찬·발간한다.
연구결과의명칭	국제권고(Recommendations)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지역표준화 기구와의관계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 및 ITSC회의에 참가	협조체제 유지
국내담당기관 및대응위원회 조직	한국통신기술협회(TTA)의 CCITT 국내 연구단	정보산업표준원(IIS)의 한국 JTC1위원회
대응 용어	Question(연구과제), WP Chairman(WP 의장), Special Rapporteur(과제책임자), Recommendations Accelerated Approval Procedure by Res. No.2 (신속승인절차)	Project WG Convener Project Editor International Standard Fast Track

회의의 개요

JTC1 SC6회의는 Working Group 전체회의 및 Sub-WG회의를 7월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였고, 7월22일에 각 Project 별 Editing 작업을 거쳐 SC6 총회는 7월23일, 24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주로 다룬 표준화 항목으로는 각종 커넥타이 양 등의 물리계층 규약, CSMA/CD, 토큰버스, 토큰링의 근거리망의 규약과 PQDB와 같은 지역망규약 그리고 패킷망, 전화망, 종합정보통신망(ISDN)과 같은 각종 망에의 접속규약 및 이러한

망간 연동규약이 있으며, 이밖에 ISDN 구내교환 규약 등 데이터 연결계층, 망계층, 수동계층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부연구조직 및 연구분야, 연구 Project 의 내용 및 Editor현황은 아래표 <3>, <4>, <5>로써 설명, 분석되고 있으며 참고로 SC6의 회원국현황은 <표 6>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회의에 국내에서는 한국 JTC1 위원회 산하 SC6 의장인 충남대 김대영 교수를 비롯하여 중앙대 김준년 교수,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의 강신각 선임연구원 외 3명과 필자 등 7명이 각 WG을 분담하여 참석·활동하였다.

<표 3> SC6 연구조직 및 연구분야

조 직	의장/Convener	연 구 분 야	관련 Project
JTC1/SC6	Mr. H. Folts (미국)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Project No.6 계열
WG 1	Mr. R. Prince(캐나다)	OSI 데이터링크계층의 서비스와 규약	6.01, 6.16, 6.31, 6.38 6.43, 6.44, 6.54, 6.55
WG 2	Mr. J. Harper (영국)	OSI 네트워크계층의 서비스와	6.11, 6.23, 6.32, 6.38

		규약	6.40, 6.41, 6.46, 6.48 6.49, 6.50, 6.51, 6.52 6.53, 6.59, 6.60
WG 3	Mr. J. Haas (독일)	OSI 물리계층의 국제표준, 서비스, 규약개발	6.05, 6.09, 6.22, 6.25 6.26, 6.27, 6.30, 6.34 6.43, 6.47, 6.56, 6.61
WG 4	Ms. I. Valet-Harper (프랑스)	OSI 전달계층의 서비스와 규약	6.35, 6.36, 6.37, 6.42 6.60
WG 6	Mr.G. Smith (호주)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ing	6.57

〈표 4〉 SC6 연구 Project의 내용

Project No	제 목	관련 소 Project갯수	관 련 WGNo.	비 고
6.01	Basic Mode	5	1	
6.05	Data Circuit Fault Isolation Procedures	2	3	
6.09.01	Interchange Circuits의 기계 특성	9	3	
6.09.02	Interchange Circuits의 전기 특성	2	3	
6.09.03	V계열, X계열 Interchange Circuit의 기능특성	1	3	
6.09.04	LAN의 물리적측면	0	3	
6.11	공중데이터망으로의 접근	5	2	
6.14	용어 - 정보처리	2	VR	
6.16	High-Level Data Link Control(HLDC) Procedure	27	1	
6.25	DTE Signal Quality Requirements	2	3	
6.26	DTE to DTE Physical Connection	3	3	
6.27	물리특성-일반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	0	3	
6.30	OSI 물리계층 서비스와 규약	2	3	
6.31	OSI 데이터링크계층 서비스와 규약	2	1	
6.32	OSI 네트워크 계층	29	2	
6.35	OSI 전달계층 서비스와 규약	17	4	
6.36	OSI 하위계층을 위한 보장된 통신기능 및 장비		4	기술 보고서

국제회의 참가기

6.37	무접속모드 전달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규약	1	4	
6.38	X.25 데이터통신규약 적합성테스트 설계	4	1&2	
6.40	OSI 네트워크서비스-ISDN	2	2	
6.41	OSI 네트워크계층 - 라우팅기능을 지원하는 규약	12	2	
6.42	ISO 8073 적합성 시험 절차	4	4	
6.43	Local Area Network	39	1&3	
6.44	데이터계층 관리		1	
6.46	네트워크계층의 Intermediate 시스템전달기능에 관한 정의	2	2	
6.47	LAN에서의 통신접속 콘넥타		3	
6.48	전화망을 이용하여 OSI 접속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X.25PLP의 사용		2	
6.49	네트워크계층의 규약		2	
6.50	OSI네트워크계층 표준에 관련된 관리요소	1	2	
6.51	CONS제공키 위한 X.25PLP의 사용		2	
6.52	OSI접속모드 네트워크서비스의 Intermediate 시스템		2	
6.53	네트워크/전달계층의 상호연동 스펙		2	
6.54	LAN-MAC 서비스 정의		1	
6.55	Logical Link Control - Test Purpose	11	1	
6.56	25 pole DTE/DCE 콘넥타번호 지정		3	
6.57	Private Integrated Service Networking	23	6	
6.59	네트워크계층 시큐리티 규약		2	
6.60	하위계층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2&4	
6.61	물리계층 관리			

〈표 5〉 각국별 Project Editor 현황

국 별	인원수
미 국	22
영 국	14
독 일	3

국 별	인원수
캐 나 다	6
호 주	2
프 랑 스	3

국 별	인원수
일 본	4
스 웨 덴	2
네덜란드	1

〈표 6〉 SC6 회원 현황

구 분	회 원 국 (National Body)
P 멤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러시아 (18 개국)
O 멤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이슬랜드,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싱가포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유고슬라비아 (19 개국)

주요 쟁점사항 및 특기사항

이번 샌디에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은 멀티미디어 응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OSI 하위계층 프로토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ECFE Issue가 가장 활발하게 토의되었으며, 이밖에 정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ecurity Issue 그리고 Management Issue가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다.

Management Issue에 대해서는 SC6 회의전에 3일간의 Pre-Meeting을 개최하여 계층 2, 3, 4와 관련된 규격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Security Issue에 대해서는 WG 2, 4가 합동으로 망계층과 트랜스포트계층에서의 Security Protocol인 NLSP와 TLSP규약 그리고 하위계층에서의 Security 지침 및 방향을 기술하는 LLSG(Lower Layer Security Guideline)이 검토되었다.

응용 서비스의 분산,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하위계층 고속통신 및 Multicasting 프로토콜에 대한 토론이 ECFE라는 주제하에 SC6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 졌다.

ECFE는 WF1, 2, 4에서 함께 토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WG4의 Transport 프로토콜에 대한 개선방안과 WG2의 Connectionless/Connection-oriented Multicasting 제공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중의 하

나로 SC6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토의가 HoD/C 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SC6의 표준화 추진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기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1993년 2월 런던회의에서 각국대표와 SC6/WG Convener, Rapporteur 등이 모여 SC6 Organization/Planning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의의 내용

각각의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ECFE General and Multipeer Architecture
 - 파리회의에서는 지난 베를린회의에서 결정된 NP 제목인 Enhanced Transport Mechanism 이 Enhanced Communication Functions & Facility로 변경되었고, Network NSAP Addressing 이 Network Group Addressing으로 변경되었다.
 - 캐나다, 독일, 미국 그리고 INTELSAT에서 Multicast Service/Mechanism과 Enhanced Transport Mechanism Issue에 대해 제출한 기고문이 발표되었고, 토의가 있었다. Multipeer 구조 및 모델과 관련하여 CCITT와 JTC1/SC21과의 관계에 대해 토의결과 앞으로 더욱 Liaison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문서를 보내 Comment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Routing Pr

otocol과 Group Addressing과의 관계, SC6내에서의 작업배분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2) Guidelines for ECFE for the Lower Layer

- 지난 2월 파리회의에서 작성된 ECFE Guideline 문서초안(SC6/N7309)에 대한 각국의 기고문에 대한 발표와 검토가 있었다. Guideline 문서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느정도까지 Guideline 문서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Multicasting 과 관련하여 N:1(Concentration) 환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프로토콜 기능과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프로토콜 부분과 QoS Enhancement 부분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토의되었다.
- Guideline 문서의 ECFE 프로토콜의 High Speed Architecture 부분이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단순하게 기존 프로토콜을 서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고속, 멀티미디어통신에 적합한 통신 프로토콜 모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3) Transport Layer Enhancement

- 프랑스는 NATO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RTTS(Real Time Transport Service)를 기고문으로 제출하였다. RTTS는 LAN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실시간 Transport 프로토콜이므로 광역환경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토의되었으며, 본 기고문은 Guideline 문서작성시 참고 정보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독일에서는 High Performance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속, 멀티미디어용 프로토콜 구조 및 Modular Transport System을 제안하여 발표하였다. 본 기고문은 독일 Karlsruhe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써 Modular 개념에 근거하여 각종 응용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토콜 구조를 적절히 선택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 ESPRIT OSI '95 Project 책임자인 벨기에 Liege 대학의 Danthine 교수는 Enhanced Connection-Oriented mode Transport Service에 대한 기고문을 제출하였다. 본 기고문은 기존 OSI Transport Service와 같은 개념으로 서비스 Connection/Release 절차를 채택하였고, QoS를 보완하여 ECFE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 했다.
- 미국은 본 Issue와 관련하여 4편의 기고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중 2편은 Protocol Engine사의 XTP 프로토콜에 근거한 High Speed Transport Service(HSTS) Definition 과 HSTP이다. 그리고 Multiplex Data Transport Service(SC6/N7445)와 Multiplex Data Transmission Transport Protocol(SD4.027)을 Expert proposal로써 제안하였는데, 이는 기존 OSI Transport Service/Protocol에 Amendment 형태로 추가되는 것으로 TP5로써 채택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Issue에 대한 NP제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각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달라 투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4) Connectionless Multicast

- 지난 2월 파리에서 있었던 High Speed Lower Interim meeting-에서 다루어진 주요내용 중 Multicast를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OSI 프로토콜에 변화를 주지않고 Multicast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Connection - Oriented Multicast

- WG2의 활동으로 미국에서는 X.25 PLP의

Multicast Mapping을 확장한 OSI Multicast Service를 New Project로 제안하였다. 이 현안은 CCITT Study Group VII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6) Data Link Enhancements

- 금번회의에 제출된 기고문이 부족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데이터링크 계층에서의 ECFF 제공방안으로써 기존 프로토콜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LLC Type4 프로토콜과 HDLC에 고속통신 기능을 추가시킨 High Speed HDLC(HSDLCP)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7) Security Issues

- 현재 SC6에서는 하위계층에서 안전한 데이터교환을 위한 정보보호 프로토콜을 개발중에 있다. 이 프로토콜은 망계층에서 동작하는 NLSP (Network Layer Security Protocol), 트랜스포트계층에서 동작하는 TLSP(Transport Layer Security Protocol) 그리고 하위계층에서의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및 방안을 명시하는 문서인 LLSG(Lower Layer Security Guideline)를 개발중에 있다.
- TLSP의 경우 DIS ballot 결과가 검토되어 이를 국제표준 ISO/IEC 10736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 NLSP의 경우 CD ballot 결과가 검토되어 이를 ISO/IEC DIS 11577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8) PISN Issues

- Reference Configuration for PISN
 - 일본의 제안으로서 현재 PINX configuration 개념을 확장하자고 제안하여 상기 제목으로 수정
 - 약간의 수정을 가미하여 6개월 DIS 우편투표에 붙이도록 결의되었다.

- Architecture Scenario for PISN

- Editor가 Y.Lee에서 Mr. M. Gallagher(U.S.A)로 변경

- Numbering and Addressing in PISN

- 일본의 제안(N.194)과 프랑스의 기고서(N.7151)의 내용을 추가하여 편집하여 6개월 DIS우편투표 절차에 붙이기로 결정

- Terminal Requirements

- 호주의 기고문(N.177, 203, 204), 일본의 제안(N.198) 및 미국의 제안(N.206)으로 Channel aggregation(6.57.03.01)로써 새로운 Item으로 결정하였고 Mr. K. Caves(영국)가 이 과제의 Editor로써 선임되었으며, 1993년 2월 회의에서 향후 추진일정을 결정

- 64kbits/s Bearer Service

- Mr. Barnicoat(스웨덴)가 CD11574의 투표결과 제출하고, 일본에서 제의한 Stage2 개요에 대해 토의하여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
- 이 Project는 6개월 DIS 우편투표 절차에 붙이도록 사무국에 요청키로 결정

- nx 64kbits/s Bearer Service

- Editor인 Mr. Kawaguchi(일본)이 Berlin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토의하여 상기 Item 01의 Stage2 개요 보강을 같이 적용키로 결정
- Stage 1 개요는 CD 투표절차에 붙이기로 결정

9) SC6 Plenary 진행사항

가) 개 요

7월 22일~23일 이틀간 SC6 Plenary가 개최되었으며 16개국 70여명의 각국대표(Delegate)가 참가하였다. 회의 의제로써 SC6/N7193R1이 채택되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국 대표의 인사가 있었는데 체코가 처음으로 1명 참석한 것이

특이했다.

Roll Call에 이어 Secretariat's Report가 간단하게 있었고 (SC6/N7194, Amd. 1R, Amd2R), SC6 의장으로부터 JTC1/Plenary 결과에 대한 보고와 (SC6/N7472), CCITT와 JTC1간 협력에 대한 Guide 및 Procedure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몇 Liaison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각 Working Group별 회의 보고 및 결의안 채택이 있었으며, HoD/C (Head of Delegate/Convener) 회의결과 및 향후 회의일정 그리고 Working Group 2/4의 새로운 Convener 선임 등의 Issue 들이 다루어졌다.

나) Working Group별 작업보고 및 Resolution 채택

WG4, WG6, WG2, WG3, WG1의 순서로 각 그룹에서 금번 샌디에고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였고, SC6 의장으로부터 HoD/C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회의 결과로 SC6에 상정한 결의안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향후회의 개최 계획

과거 SC6는 약 9개월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90년 시드니회의에서 12개월 간격으로 매년 9월~10월경 회의를 개최하자는 안이 제안된 이후, 91년 베를린 회의를 거쳐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주요 활동멤버들이 ISO 표준화작업의 시간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따라서 93년 서울회의부터 12개월 간격으로 개최하려 했던 계획이 철회되고, 다시 9개월 간격으로 정기회의를 개최기로 하였다. 향후 개최될 SC6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93-02-08 / 02-12 : 런던(WG Interim Meeting)

- 1993-09-20 / 10-01 : 서울

- 1994년 6월 : 핀란드

- 1995년 3월 : 일본

회의 참가 소감

● 기술적 내용 외에 SC6의 향후조직, 작업영역, 수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토의된 사실은 ITU의 CCITT, CCIR의 통합 및 기능강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미가 상당히 크며 향후 큰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3년 2월의 런던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토의되어 1993년 9월 서울총회에서 정식으로 토의, 방향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DIS 투표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다음 JTC1 총회에서 4개월로 단축, 가속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JTC1 회의에서는 각나라의 표준화관련 주관청(National Member Body)의 대표성을 상당히 존중하여 각나라의 대표단의 대표 (Head of Delegation : HoD)회의를 수시로 소집하여 회의 진행계획, 절차 및 쟁점사항 사전조정 등 HoD 회의를 조정·운영회의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SG6 Plenary 회의에도 상정된 각 Resolution 마다 매년 National Member Body의 찬반 여부를 투표로써 확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가참가단의 활동증진 및 대외교섭 등에서 적극 지원키 위해 국가 또는 협회에서 일정금액의 대외활동비를 지급하여 각국 대표단과의 회의, 오찬 등에 활용하여 아국의 표준화 대외교섭력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겠다.

● JTC1 회의는 각 SC별로 사무국이 각 나라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 SC 회의 및 WG회의도 관련 P 멤버국가를 순회하여 개최되는 관계로 각종 자료, 문서 등의 배포, 관리체계가 CCITT 보다는 뒤떨어진것 같으며, 회의장시설 및 운영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눈에 띄는것 같다.